

아시아테마 세계현대도자전 World Contemporary Ceramics

도자, 아시아의 피부 Ceramic, Skin of Asias



할리마 카셀 · Halima Cassell **Pakistan**

할리마 카셀은 1975년 파키스탄 출신으로 영국 맨체스터에서 거주하고 있다. 센트럴 맨체스터대학과 대학원에서 도자와 디자인을 전공했다. 도예가이며 디자이너로서 활동하는 그녀는 파키스탄과 영국을 오가며 작업하고 있으며 도자를 재료로 한 공공미술 작품을 제작하고, 유럽을 무대로 활발한 전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할리마의 작업에서는 아시아인으로서의 뿌리와 아프리카 패턴 디자인의 영향, 이슬람 건축의 기하학적 균제미에 대한 영향을 받은 다문화적 배경의 혼성이 드러난다. 그녀는 유약 없이 흙 자체의 톤을 조정하여 만든 반구형, 원뿔, 평평한 접시 등 용기의 안과 밖에 기하학적 패턴의 문양들을 조각한다. 크고 작은 다양한 형태의 건축적 그릇들은 어둠 속에 빛이 드러나길 기다리는 깊은 바다처럼 빛과 그림자의 효과를 드라마틱하게 드러낸다. 할리마의 건축적 그릇은 평온과 안식을 위한 예술이며 이성적이고 정교한 균형미를 추구하는 이슬람 예술의 역사적 깊이를 간직하고 있다. 그녀는 또한 사각의 형태에 관심이 있는 남성과 구형의 형태에 관심이 있는 여성적 장식을 두루 보여줌으로써 남성과 여성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Halima Cassell's works evince her own varied cultural background. Her roots are in Asia, but she is influenced by African pattern designs and the beauty of geometric patterns of Islamic architecture. Without glazing, she produces vessels of various forms including semi-globular, cylindrical, and flat pieces. On the surfaces of the inside and outside of a vessel, she engraves geometric patterns for decoration. Architecture-like vessels of different sizes dramatically reveal the effect of light and shadow, like a deep sea waiting for light to be revealed. Architectural vessels of Halima Cassell contain the lengthy history of Islamic art, which pursues an exquisite beauty of order and symmetry as an art for peace and comfort. She also emphasizes the balance between man and woman by showing both square and globular forms in her works.

할리마 카셀 · Halima Cassell Pakistan

할리마 카셀은 1975년 파키스탄 출신으로 영국 맨체스터에서 거주하고 있다. 센트럴 맨체스터대학과 대학원에서 도자와 디자인을 전공했다. 도예가이며 디자이너로서 활동하는 그녀는 파키스탄과 영국을 오가며 작업하고 있으며 도자를 재료로 한 공공미술 작품을 제작하고, 유럽을 무대로 활발한 전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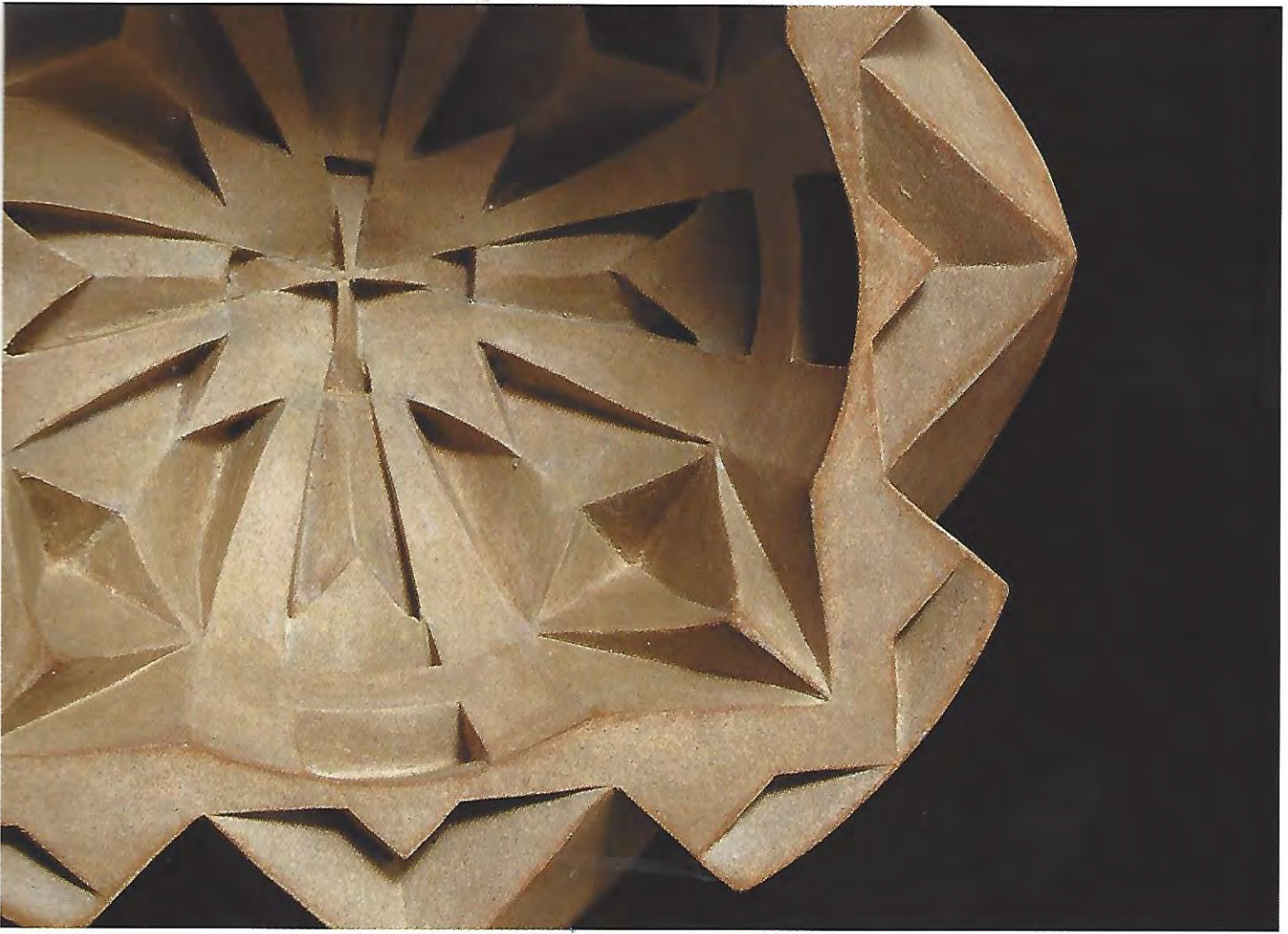


할리마의 작업에서는 아시아인으로서의 뿌리와 아프리카 패턴 디자인의 영향, 이슬람 건축의 기하학적 균제미에 대한 영향을 받은 다문화적 배경의 혼성이 드러난다. 그녀는 유약 없이 흙 자체의 톤을 조정하여 만든 반구형, 원뿔, 평평한 접시 등 용기의 안과 밖에 기하학적 패턴의 문양들을 조각한다. 크고 작은 다양한 형태의 건축적 그릇들은 어둠 속에 빛이 드러나길 기다리는 깊은 바다처럼 빛과 그림자의 효과를 드라마틱하게 드러낸다. 할리마의 건축적 그릇은 평온과 안식을 위한 예술이며 이성적이고 정교한 균형미를 추구하는 이슬람 예술의 역사적 깊이를 간직하고 있다. 그녀는 또한 사각의 형태에 관심이 있는 남성과 구형의 형태에 관심이 있는 여성적 장식을 두루 보여줌으로써 남성과 여성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Halima Cassell's works evince her own varied cultural background. Her roots are in Asia, but she is influenced by African pattern designs and the beauty of geometric patterns of Islamic architecture. Without glazing, she produces vessels of various forms including semi-globular, cylindrical, and flat pieces. On the surfaces of the inside and outside of a vessel, she engraves geometric patterns for decoration. Architecture-like vessels of different sizes dramatically reveal the effect of light and shadow, like a deep sea waiting for light to be revealed. Architectural vessels of Halima Cassell contain the lengthy history of Islamic art, which pursues an exquisite beauty of order and symmetry as an art for peace and comfort. She also emphasizes the balance between man and woman by showing both square and globular forms in her 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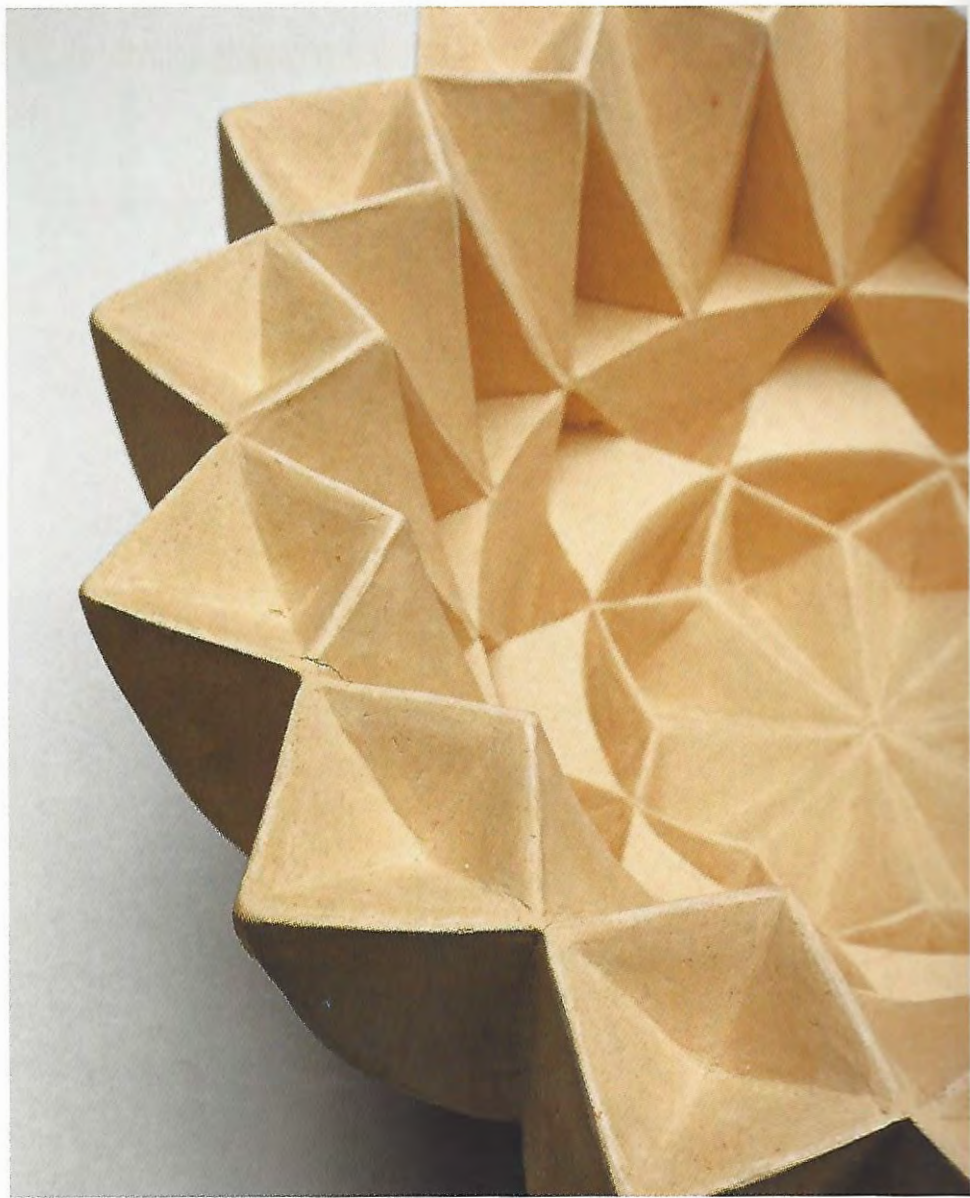
대화하는 꽃잎들 2004 | 유약이 없는 점토 Converse Petals 2004 | unglazed clay | D. 30.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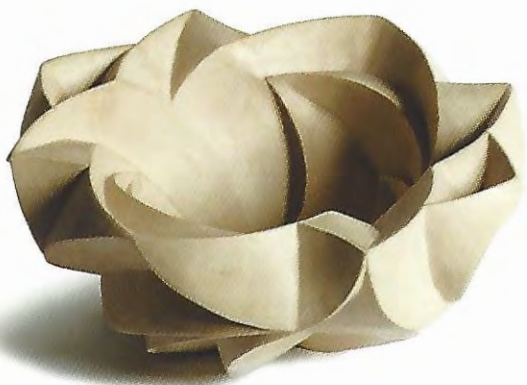
요새 2004 | 유약이 없는 점토 Citadel 2004 | unglazed clay | D. 30.5cm(detail)



REM 2006 | 유약이 없는 점토 REM 2006 | unglazed clay | D. 30.5cm



다이아몬드 입술 2003 | 유약이 없는 점토(부분) Diamond Lip 2003 | unglazed clay | D. 30.5cm(detail)



얼음 모래언덕 2005 | 유약이 없는 점토 Ice Dune 2005 | unglazed clay | D. 30.5cm



대지-개화 2005 | 유약이 없는 점토 Gaia Florescence 2005 | unglazed clay | D. 30.5cm